

한전의 '94 중소기업 기술지원 기본방향

1. 기업환경의 변화

국제산업 기술환경

- 기술력 우위 확보 경쟁의 심화
 - 군사력 경쟁에서 경제력·기술력 위주의 경쟁으로 변화
 - 부존자원 비교우위에서 정보·기술개발력 우위 경쟁 체제로 재편
 - ※ 독자적인 고유기술의 필요성 대두
- 신국제 경제질서 태동
 - GATT 체제의 붕괴와 WTO(세계간 무역기구) 체제로의 전환
 - 시장 전면 개방과 선진국의 기술독점을 위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
 - ※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의 활성화 촉진 필요

국내산업 기술환경

- 제조업 성장둔화로 기술력 저해 우려
 - 3D현상으로 제조업 분야에 우수기술 인력 근무 기피
 - 제조업 저성장과 투자 기피에 따른 기술력의 축적 미약
- 국내기업 또는 산업간 경쟁시대를 지나 냉혹한 국제경쟁시대 돌입
 - 국제화 및 개방화로 기업간·산업간 기술개발의 협력 필요성 증대

중소기업 환경

- UR협상 타결로 국내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타격 심화
 - 비관세 장벽의 철폐와 시장개방으로 무한경쟁시대 도래
 - 개도국의 저임금과 선진국의 기술력으로 우리기업의 입지약화
 - 일반화된 기술의 로얄티 문제 제기로 중소기업의 부담가중 및 타격 예상
- 중소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기술개발 투자의 위축
-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실질적 협력관계 미약
- 보호와 지원위주에서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의 정책 전환

2. '94 기술지원 방향

중소기업 기술지원의 본격추진

- 사업별 지원규모의 확충
 - 협력연구개발비 지원 : 100억원
 - 자동화·정보화 기술개발 지원 : 20억원
 - 보유기술의 무상제공과 사업화 지도 : 4억원
 - 전력공급설비 확충·보강 : 130억원
 - ※ 총지원 규모 : 254억원
- 기술지원사업의 내실화 도모
 - 협력연구개발 절차의 개선

- 기술지도 및 설비점검 진단의 활성화 촉진

- 전력 VAN 서비스 제공의 수준향상

○ 중소기업 기술지원 범위의 확대

- 전기공업의 진흥 및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방향 설정

*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는 기술력 배양이 관건

* 전기공업 수준의 향상은 전력사업 발전의 요체

※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한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

- 참여기준 및 조건 완화

* 출입등록 및 납품실적 기간의 단축

* 한전 납품비율의 하향조정

○ 협력연구개발의 활성화 촉진

- 협력연구개발과제 특별 제안기간 설정·운영

-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도 과제 제안이 가능토록 조치

- 연구부서 책임자 초청 간담회 개최

중소기업 기술지원 촉진활동 강화

○ 중소기업 기술지원창구 및 지원센터별 자체계획 수립 추진

○ 지역별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소의 지원활동 강화

○ 전력그룹사 연계지원 촉진 대책회의 정례화

○ 지원사업 확충을 위하여 전기협회 등 주변단체를 최대한 활용

중소기업과의 정보유통체제 구축

○기술수요 및 설문조사 실시

-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수요 측정·분석
- 효과적인 기술지원 활동을 위한 정책자료 수집
- * 설문서 회수 및 통계처리작업 착수

○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사항 안내

- 협력 중소기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정보 제공
- 기술지원 관련 참고자료 발송 및 안내
- * 『전력문화』 및 『이달의 원자력』 등 정기간행물 배포

○한전의 KIS 가입 적극 권유

- 향후 EDI 추진으로 정보유통의 원활화 도모
- 전력 VAN의 서비스 수준향상과 전력정보의 수시제공

중소기업 기술지원 사후관리 강화

- 기술지원 실적의 분석·평가 실시로 내실화 도모
- 우수 또는 부진사업의 관리강화로 지원효율 증진